기 고

노경수

새로운 대도시권 전략이 필요하다

광주시가 최근 민자유치를 통해 돔구장과 그 주변에 스포츠레저관광타운을 조성, 미래형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대다수 시민들은 무등경기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야구장을 건립하는 방안에는 이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야구장의 건설방식인 돔구장 건설과 관련 찬반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의 주요 쟁점으로는 광주 인구규모를 고려했을 때의 사업타당성 결여, 민자유치에 따른 과다한 특혜 우려, 독단적·일방적 행정의 의사결정과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주로 돔구장 건설 자체에만 한정되는 것은 도시계획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돔구장을 단순히 새로운 야구장을 하나 만드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 대도시권의 발전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각 지역들은 세계 곳곳의 다른 지역들보다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틀에서 벗어나 인접지역 간 연계 및 협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설정이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부품 및 광융합기반산업 등 호남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 선정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호남광역경제권에서 기반시설, 접근성, 사용할 수 있는 부지, 지가, 개발의 용이성 등 여러 조건들을 따져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거점과 축은 최상의 개발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광주~빛가람 혁신도시 축이다. 결국 이 개발 축에 어떠한 기능을 구상하느냐가 미래 광주의 경쟁력을 좌우할 가장 핵심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 기능은 물론, 에너지(전기), 농업, 문화 등의 특화기능을 갖는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영산강 살리기 등 광주·전남의 현안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창의적인 발상에 의해 발굴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도시권 구상 속에서 새로운 야구장 건립을 생각할 때, 사업비 규모, 이용 인구, 관광 등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단순한 야구경기만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 기회에 보다 적극적인 발상 전환을 통해 도시개발의 세계적인 추세인 스포츠를 포함한 쇼핑, 레저, 숙박 등 복합개발개념 도입을 통한 신도시를 구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야구선진국의 경우 프로스포츠팀이 특정도시에 주는 이점으로, 첫째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 고취, 둘째 경기관람을 위한 지역 내 식당과 호텔로 관광객과 주민 흡인, 셋째 도시브랜드 가치의 제고, 넷째 외부 기업의 입지 선호 증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러한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아타이거즈의 V10에 걸맞은 복합기능의 첨단시설의 야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구도심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상생하는 신도시 개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도심 기능이나 주거지를 단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수도권이나 해외의 기능과 인구를 수용해야 한다. 또 신도시 개발로 인해 공공기관이 올리는 수익의 일정부분은, 지금 쇠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재개발도 여의치 않는 구도심 주택가를 재생하는 데 사용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결국 새로 건립될 야구장을 매년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약 60여 일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300일은 그대로 방치돼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365일 이용할 수 있는 돔구장을 영산강시대의 광주광역 대도시권 구상에 적합한 신성장동력의 핵심시설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야구장 건설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다.

야구팬만을 위한 야구장이 아닌, 광주·전남의 모든 주민들은 물론 수준 높은 서비스업을 고대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도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돔구장과 신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검증하고 논의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종 고 칼 럼

박철수

슬픈 풍년가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좋은 습관 한가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절대로 밥그릇에는 밥 톨 한 알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배운 절대 교육이었습니다. 밥알은 생명이라고 배웠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들판을 보노라면 행복하고 가슴 뜨거워집니다. 저 황금 나락들판을 여물어 내기 위해 농부는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저들을 돌보고 가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면 농부만이 아니라 임금도 백성 모두도 풍년가를 부르면서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참으로 대풍년 중에 대풍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풍년가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염받아야 할 들판의 황금 나락들이 길잃은 어린아이처럼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영농비도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나락을 갈아 엎는 농민의 피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락을 갈아 엎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갈아 엎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나락을 갈아 엎는 농부들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던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40~50년 전에 쌀밥 대신에 잡곡밥을 먹었고 그것도 없어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아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인구가 2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약 800만 명이 기아와 질병의 고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발 정부는 옥수수 수입해서 대북지원하는 광대짓 하지 말고 우리의 남는 쌀로 저들을 먹여서 생명만은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농사는 농민들 만의 몫이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 가는데 있어 먹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1의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농사일은 농민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할 가장 첫 번째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농정을 방치하고 있는 듯합니다. 농정을 방치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지금 이러한 농촌 실정에 어느 누가 농사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농촌이 일단 붕괴되면 그것은 사망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밀농사에서 아주 잘 배웠습니다. 한번 사망한 밀농사를 살려보려 해도 거의 회생 불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식량 문제는 미래의 안보입니다.

〈산수동성당 주임신부〉

기 고

정일훈

신종플루, 운동으로 이기자

신종플루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꾸준한 운동을 제안해 본다. 지금 세계적으로 신종플루의 위험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하리라 짐작한다. 신종플루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심각(Red)' 단계에 이르렀고,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들은 불가피하게 휴업을 결정하고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대처 방안에 불과하다. 최근에 다시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광주체육고의 학생들은 단 한 명의 확진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본교의 교육과정 특성상,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되는 지속적인 운동으로 인하여 일반 학교 학생들에 비해 본교의 학생들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전혀 감염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는 훈련 직후 다소 면역력이 약해져 아프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신종플루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행 7차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체육 수업 시수가 중학교 1, 2학년은 주당 3시간이고 중학교 3학년은 2시간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1시간이고 2, 3학년은 선택교육과정이라 예·체능 교과는 선택에서 제외되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에게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활동도 충분히 시켜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들을 길러야 하는데, 체육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운동 여부에 따른 뇌 활동 상태를 비교해 보면, 운동을 하는 학생의 뇌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증진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고정된 자세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 척추가 굽고 시력이 나빠지는 등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듯싶어 염려스럽다. 청소년기는 한창 움직이고 운동을 많이 해야 할 시기인데도 체육활동을 위한 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생활 중에 날마다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각종 운동을 접해보아야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 생활 체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운동이 양질의 삶을 누리기 위한 관건이라 여기며 운동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활 체육의 활성화에 일조한다면 국민 다수의 건강이 더욱 양호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실정에서는 학생들의 건강도 보장이 안 되고, 학교 체육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사회인들도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매번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가 흔하다. '건강이 최고'임을 인식하고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정작 운동을 꾸준하게 즐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생활 여건이 여유롭지 못하거나 경제 활동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느라 여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운동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또한 학창 시절부터 운동의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운동을 시작해 보자.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면 자신의 삶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롭겠는가. 운동의 일상화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신종플루도, 그리고 다른 질병도 보다 수월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체육고등학교 교장〉

소규모 마을 태양광 설치사업 정부가 앞장서야

강원도 인제군 남전1리의 산골마을 주민들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3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연간 3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 수익이 나는 것은 생산된 전기를 시가의 6배나 되는 비싼 값으로 한전에 팔기 때문이다. 수익금은 다시 마을 개선사업에 투자되고, 이런 사업을 통해 일자리까지 생기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면 멀리까지 전기를 보낼 때 생기는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송전탑과 변전소 등의 대규모 송전설비도 필요 없다.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이 같은 소규모 마을 단위의 동네발전소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자치단체의 청정 에너지 필요성 홍보는 물론이고 자금과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박종심·목포시 동명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농촌 수퍼서 필수 의약품 살수 있었으면

시골 친정아버지가 며칠 전 감기에 걸리셨다. 그런데 제때 약을 드시지 않고 참다가 급성 폐렴으로 아직도 치료중이시다. 감기약 하나 사먹기 위해 멀리 떨어진 읍내 약국까지 가실 시간도 안나 그냥 참는 일이 대부분이다.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을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농촌은 이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병원 신세를 지고 고통을 겪는다면 제도를 바꿔야 옳다. 그러니 농촌에서는 수퍼에서도 기초 필수 의약품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읍내 약국에 당번제라도 정해 24시간 혹은 새벽까지 영업하도록 조치해 농민들이 약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건의한다. ▲한선희·목포시 눌도동

사 설

한전, 꼼수 접고 혁신도시 부지 매입 나서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전력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며 부지매입을 미루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공동혁신도시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사옥부지 축소 ▲조성원가 인하 ▲부지 대금 분할 납부에 따른 할부이자 감면 등을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단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한전의 이 같은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토지이용 계획이나 조성원가 등이 정부 방침에 따라 이미 결정됐기 때문이다. 한전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정부의 승인을 다시 받는 등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외적으로 연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세종시 수정 논란'의 추이를 보아가며 정책 변경을 기대하고 시간을 끌고 보자는 속셈이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한 한전의 말바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전이 확정된 지난 2005년 이후 수많은 말바꾸기와 사업지연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올해 연말까지 부지를 매입하겠다던 국회 답변마저 번복했다가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지역 국회의원의 지적에 마지못해 "금년 내에 가계약이라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혁신도시는 세종시 문제와는 별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전이 꼼수를 부리면서 혁신도시 정책마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 사업은 변경될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혁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생긴다면 수습하기 힘들 정도의 파장이 우려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한전이 부지매입을 서둘러야 한다.

해양학 총회, 엑스포 시너지 효과 기대한다

여수시가 세계 해양학·기상학 합동기술위원회(JCOMM) 차기 총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기간인 오는 2012년 5월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제 4차 JCOMM 총회가 열리게 된다. 전남도가 대규모 국제 회의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COMM은 전 세계 182개국을 회원국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인류의 안전을 위한 최상의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면서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여수 총회에는 100개국에서 2천여명이 참가해 최소 8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회 참석자들이 전남의 청정 바다와 갯벌, 다양한 해양생물자원 등을 체험하게 돼 자연생태 보고인 전남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게 됐다. 또 세계 각국의 첨단 해양기상 관측장비 제작업체들이 참여하는 산업 전시관이 운영돼 관련 산업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JCOMM 총회 유치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열린다는 점이다. 총회에서 논의될 내용들이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과도 일맥상통한다.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을 제치고 총회를 유치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부지 조성사업이 이달 말 착공되는 등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낙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대규모 특급호텔 착공이 지연되는 등 숙박시설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참가국 유치 역시 현재까지 28개국이 참가를 확정했으나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박람회 개최까지 2년 반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JCOMM 유치가 여수세계박람회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無 等 鼓

'착한 커피'

유명브랜드의 커피,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의류, 신발 등 한번쯤 그 상표 뒤에 감추어진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 우리가 입고, 마시고, 치장하면서 스쳐가는 일상의 물건들 속에는 그걸 만든 제 3세계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좋은 브랜드 대신 만든 이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물건을 구입한다면 커피를 생산하는 에티오피아 농민들이 충분한 식량을 살 수 있으며, 일주일에 50시간 양탄자를 짜던 네팔소년이 학교에 갈 수 있고, 절망에 빠진 방글라데시의 신발공장 소년이 자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네팔·동티모르·인도·이란·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Fair Trade)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에서도 공정무역에 의해 거래되는 시민소비운동, 이른바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동티모르 등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대표적인 공정무역 상품으로 '착한 소비'의 기준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착한 소비운동'에 발맞추어 공정무역제품으로 만들어진 "'착한 커피'를 마시자"라는 움직임이 YMCA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일부 편의점들이 아름다운 가게의 공정무역 커피 브랜드인 '아름다운 커피'를 팔기 시작했고, 홈쇼핑· 대형마트들도 앞다퉈 '착한 커피' 판매에 뛰어들고 있다. 매출도 덩달아 뛰어 아름다운 가게는 '아름다운 커피'의 올 전체 매출액이 지난해 9억 원의 3배가 넘는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외국 유명 브랜드의 커피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길들여졌다. 터무니없는 커피값에도 의심의 눈초리 한번 줘보지 못했다. 오늘 '착한 커피' 한잔이 우리들의 무뎌진 관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h8@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